

#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전국 '최고'

익산시, 지원조례 개정 특례보증 한도 5천만원까지 확대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전국 최고 규모의 금융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달 31일 시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됨에 따라 금융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별 특별융자 한도를 당초 3천만원에서 5천만원(기준 보증 금액 포함)으로 확대한다. 특례보증 지원은 개인신용평점 595~890점(구 신용등급 4~7등급)인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

혜택과 동시에 최고 연 4%의 대출이 자까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별융자 한도액 증액에 별도로 특례보증 공급 규모도 당초 70억 원 규모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를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출연 규모도 당초 7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어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대출받은 정부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차 보전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제1기 교육강좌 개강

군산시, 357개 강좌 운영… 시민 역량 강화·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이바지

군산시는 침체된 지역 경제 골목상권을 살리고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실시하는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사업의 2022년 제1기 교육강좌가 4일부터 개강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건강한 학습과 수준별 교육으로 운영되는 이번 제1기 과정은 총 357개 강좌로 357개소 학습장에서 시민 2,468명(학습자 1,916명, 강사 472명, 학습매니저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된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첫 시행한 동네문화카페 사업은 연중 3기에 걸쳐 1기당 10주 수업으로 진행하며, 5명 이상의 시민들이 가까운 학습장을 섭외해 온라인으로 강좌 신청을 하면 시에서 강사와 매니저를 파견하고, 학습장을 제공한 소상공인 상가에는 공간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침체된 지역 경제 골목상권을 살리고, 시민들의 평생 교육을 위해 실시하는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사업의 제1기 교육강좌가 4일부터 개강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습자의 건강하고 편리한 학습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기존의 방문 신청

을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했으며, 온택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시스템을 준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 익산시, 민선 7기 공약 이행 '전국 최우수'

익산시가 전국에서 시민과의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하면서 시민과의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자치단체로 평가받게 됐다.

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SA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25

일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22개 시군구청장의 공약이행과 정보공개 평가 자료에 대해 분석한 1차 평가와 지적사항에 대한 자자체 소명자료 평가 등 2단계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평가항목은 △공약이행완료분야 △2021년 목표달성을 △주민소통분야 △웹소통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분야(Pass/Fail) 등 5개 지표로 이를 종합 평가한 뒤 5단계(SA, A, B, C, D)로 등급을 부여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a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 지역 소식통

군산시, 2022년 인구정책

가이드북 제작·배부

군산시는 임신·출산·육아·고용 등 인구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2년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제작·배부했다고 1일 밝혔다.

인구정책 가이드북은 △임신·출산 지원, △신생아·보육·아이돌봄, △기구별 맞춤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고용정책, △관련기관 안내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유용한 지원 정책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예비 또는 초보 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가이드북에는 △친환경농산물공급,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영아수당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6개 정책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그 외에도 새롭게 변경된 다양한 정책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 군산시, 빅데이터

전문가 초청 특강

군산시는 빅데이터 전문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정한민 교수를 초빙해 직원 대상 특강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위기상황 극복, 사회현안 해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체험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월 익산시와 익산시교육청, 익산시마을협의회가 지역교육공동체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로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는 빅데이터 전문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정한민 교수를 초빙해 직원 대상 특강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4개소(횡성·자율방범대 2층 모현동/익산)에 마련된 세상아파트 102동 묘고 부송동/어양조 옆, 영동동/서일동 @ 옆)가 운영 중이고 이번에 선정된 2개소(신동/원광종합사회복지관 2층 모현동/오투포리미아 @ 옆)는 4월 리모델링 완료 후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군산=남현봉 기자